

박정희의 근대지상주의,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근대문명, 근대권력, 식민화된 의식 냉철 분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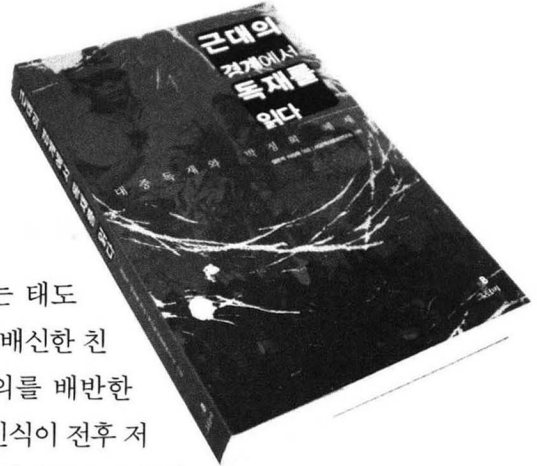
글_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사

박정희, 숭배 혹은 향수의 대상

독립영화프로덕션 ‘빨간눈사람’이 2001년 제작한 ‘빨간영화’ 애국가 게임에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생가 풍경이 등장한다. 생가에 놓인 박정희의 영정 앞에서 어느 평범한 장년 여성은 납죽 절을 하고 보리고개라는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켜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카메라 앞에서 열렬히 칭송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혹은 학습효과로서 종교적 숭배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같은 숭배가 대중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박정희 집권기를 체험한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전전 세대의 경우 박정희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이들에게 박정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한 근대화의 핵심 주역이자, 절대빈곤 탈출과 국력신장을 이끈 ‘진정한 지도자’로서 인식되어 있다. 전전세대의 이같은 인식은 ‘박정희의 독재는 다소 잘못되었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독재불가피론으로 연결되어 박정희와 그 시대를 평가하는 유력한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우파 지식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필요조건이었으며, 한국 민주화의 추동력은 박정희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는 식의 담론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박정희와 저항운동이라는 두 괴물

전후세대의 박정희 인식은 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4·19와 6·3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문제에 젊은이들은 예민해져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반대했으며, 긴급조치 세대나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의 경우 박정희식 국민교육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했으면서도 박정희에 대해



서는 칼을 들이대는 태도를 취했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이자, 민주주의를 배반한 독재자’라는 식의 인식이 전후 저항세대의 박정희 비판담론으로 굳어졌다. 민족과 민주를 근거로 했던 이들의 저항은 분명 박정희체제에 커다란 위협이었고, 이 저항담론은 박정희사후 그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판적 인식의 준거틀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민족과 민주라는 저항(비판)담론은 박정희의 지배담론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민족과 민주’라는 가치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과도 같은 양상이었다. 비록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초적 불신을 종종 표현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정치행위나 정치담론 차원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내세우고 이용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고 불리는 유신선포조차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루어지는 역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민투표라는 요식절차를 통해 집권자의 권력의지를 정당화했고,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저항 진영의 민주주의 인식은 인권이나 절차의 소중함을 자각해 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 박정희라는 괴물에 상황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유신과 긴급조치의 폭압적 상황 아래에서 민주주의로의 왕도는 독재자 박정희라는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다. 괴물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위의 지도 아래 민중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조직론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항조직 또한 하나의 괴물이 되어갔다.

민족지상주의 마침내 만개(滿開)하다

분명 박정희는 지배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가장 잘 전유한 지도자였다. 식민지인의 열등감을 근대문명에 대한 열망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박정희가 이순신과 같은 전통적 역사영웅을 민족의 위기로부터 구원할 '민족부흥'의 표상으로서 광화문 네거리 한복판에 재현하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주술을 어린 학생들의 뇌세포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 민족적·국민적 주체는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재구성된 민족적 주체의 일부는 바로 그 민족이라는 잣대로 박정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박정희의 반공주의를 통일운동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하였고, 그의 친일행적과 경력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친일과의 기만적인 거짓민족주의라고 몰아세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민족주의와 거짓민족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2차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적 욕망을 감추면서 그것과 결합되어 타 이데올로기를 적대·배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박정희는 민족의 이름으로 개발독재를 정당화했고, 저항운동 진영은 민족의 이름으로 남한 군사독재를 비판하였다. 저항진영의 민족주의의 저항성은 자유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촉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박정희의 민족주의와 저항진영의 민족주의는 서로 공명하고 있었다.

1997년 IMF 사태 직후 국채보상운동이 부활되어 금모으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박정희에 대한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이 불었다. 진보적 학자들은 'IMF 사태로 박정희식 경제개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박정희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대중들은 역설적이게도 박정희를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것은 위기라는 상황적 국면으로 인해 표출된 것일 뿐 어찌면 대중의 무의식 속에는 박정희에 대한, 혹은 파시즘에 대한 욕망이 잠재해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21세기의 젊은이들은 독재의 억압성을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일상적으로 전유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울

림픽과 월드컵은 대중의 민족·국가주의를 고양시키는 축제이자 전쟁터로서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는 분명 박정희의 멸사봉공식 맹목적 국가주의와 다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고도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적 소외와 박탈감을 민족주의라는 집단 심리로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민족주의로 유희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유희로서 민족주의는 분명 박정희식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른 것이지만, 동북공정이나 독도문제를 둘러싼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적 반응 속에는 박정희의 잔영이 여전히 남아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들어설 곳이 없는, 국민국가의 국경 밖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민족주의는 유쾌한 희극에서 잔혹한 비극으로 변모할 지도 모른다.

선악의 저편

박정희는 분명 한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그가 구축한 성장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익을 중심축에 놓고 경제에 올인하며 여타의 가치를 무화시키는 박정희식 근대화전략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도록 담론화·제도화시키며 근대의 위태로운 모순을 증폭시키는 방식이었다. 젊은이들이 베트남 파병을 나가 피를 흘리고 노동자들이 잔혹한 노동 조건에 힘겨워하는 순간순간, '국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박정희가 위로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희생자들의 거대한 무덤 위에 서있게 되었다.

반면 박정희의 악마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구하는 식의 평가담론은 분명 한계를 드러냈다. '저 독재자의 근대는 나쁜 근대이며, 우리 민주세력의 근대는 좋은 근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안이하고 위태로운 것인지는 군부종식 이후의 동시대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독재자들이 어떻게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가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있다. 박정희가 구축한 근대문명과 근대권력, 식민화된 의식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성찰할 때, 대안을 향한 새로운 전망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